

로컬라이프



코레일 익산역, 설 대수송 대비 특별안전점검 실시

코레일 전북본부 익산역(역장 설령환)은 설 대수송을 맞아 25일 코레일유동호남본부와 합동으로 익산역내 입접업체의 서비스 및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구내 입접업체의 시설물 등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했다.

설령환 익산역장은 안전이 최고의 서비스를 강조하고, 7일간의 설 연휴기간 동안 약 10만여명이 익산역을 이용할 것에 대비하여 사전 점검을 시행했다"며, "귀성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고향에 다다라길 수 있도록 익산역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27~30일 설 연휴기간 병의원·휴일지킴이약국 지정 운영

군산시는 설 연휴기간동안 의료기관의 진료공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 운영한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보건소에 응급진료 상황실(463-4000)을 설치해 시민들이 진료 및 의약품 구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군산의료원(472-5129), 동군산병원(440-0516), 군산한국병원(469-7119)과 비산진료체계를 구축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처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병·의원 91개소, 약국 67개소를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으로 지정해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등 공공보건기관과 함께 지정된 날에 운영토록 했다.

/군산=문정곤기자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명절 맞이 사랑나눔 실천운동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학장 조석남)는 최근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찾아 사랑나눔 실천운동을 실시했다.

조석남 학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은 가난한 사랑의집 등 익산시 소재 사회복지시설과 보훈가정 등 네 곳을 방문해 교직원들이 모금한 성금 56만원을 전달하고 사랑과 위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조석남 학장은 이날 복지시설을 방문해 "우리 교직원들의 마음이 전해져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웃을 도움으로써 우리 대학이 지역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기자

대성메디칼, 여성위생용품 기탁

(주)대성메디칼(대표 양용호)이 작년 연말에 이어 여성위생용품 1,080팩(500만원 상당)을 익산시에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25일 오전 시장실에서는 정현을 시장을 비롯한 양용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탁식이 열렸다.

양용호 대표는 "익산시에서 기부를 받아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동참하게 되었다"며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어려운 청소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길 바란다"고 기부 의사를 밝혔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기탁한 위생용품은 필요한 대상자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 설 명절 관광객 맞이 총력

고군산군도 개통구간 관광안내소 등 편의시설 확충 근대문화거리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 준비

군산시가 설 연휴기간 관광객을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와 고군산군도 편의시설 확충 시설물 일제점검 등으로 손님 맞이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설 명절기간 군산의 대표관광지인 근대문화거리 초월사진관(27~29일) 및 근대역사박물관(27~30일) 일원에서 대형 율놀이 제기차기, 투호던지기 전통놀이마당과 사진인화 서비스 근대박물관 무료체험, 타로 점 체험, 가훈 써주기 등 다양한 신년이벤트로 시간여행자에게 즐거움을 제

공할 예정이다. 또 고군산군도 개통구간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관광 만족도 제고를 위해 교통관련 부서와 연계해 교통안전 요원을 배치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 관광객 맞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고군산군도 임시개통 구간인 신시도에서 무녀도 회화로까지 관광객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관광안내소와 화장실을 각 2개소씩 확충해 군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주요관광지인 은파호수공원, 금강호, 오성산 등의 시설물 일제 점검을 추진하여 물뿔다리 조영 및 산책로 가로등 점검 편의시설 유지관리, 시설물 청결 등을 실시하고, 설 명절 기간 순환근무를 실시해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설 명절 군산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하여 근대문화거리 일원에서는 스마트 플랫폼 구축으로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돼 관광안내가 실시될 예정"이라며 "군산관광에 대한 정확한 정보로 재미를 두 배 더 얻어가는 설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마을세무사 제도

서민들 위한 맞춤형 세무상담 '호응'

'군산시 마을세무사' 제도가 세무상담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취약계층 등에게 무료로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마을세무사를 통한 상담실적은 총 72건(지방세 6건, 국세 66건)으로 국세위주의 상담이 주를 이뤘으며, 상담방법은 방문(7건)보다는 신속하고 간편한 전화상담(65건)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산시 토지개발 명목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대상임을 사전 안내해 기간을 놓쳐 받게 되는 가산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 및 절세를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등 마을세무사들의 재능봉사는 지역사회 발전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

최근 명예퇴직 후 소매업을 시작하게 된 영세상인 김모(남·55)씨는 "창업 시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처리 및 사업영위 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납부무무를 상세히 설명해줘 창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의회, AI 특별방역 초소 방문 근무자 격려

익산시의회(의장 소병홍)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의 관내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활동 등 비상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지난 24일 AI 방역초소를 방문했다.

이날 의원들은 목천동 농산물도매시장과 용동면 구산리의 용동RPC, 여산면에 설치된 거점소독장까지 방역초소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AI 방역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근무자들에게 격려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소병홍 익산시의회 의장은 "우리의 AI 선제적 5단계 방역체계가 전국 우수사례로 꼽혀 볼 모델로 떠올랐음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AI 발생을 대비하여 지속적인 방역과 함께

정정익산 시수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제2차 정기회의 개최

군산시는 25일 군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어린이·청소년의회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지난 2016년 7월 출범한 제1대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마지막 회의의 일정으로, 그동안 진행했던 정기회 2회, 임시회 5회의 비례 회기일정을 마감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그간 정책제안 과제발표회 시 우수정책 제안자와 각 의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해 책 임감 있게 의회를 이끌어 온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의회 활동에 참여한 의원 대표 및 부모님 대표의 소감 발표로 제1대 의회 마감의 아쉬움

을 달래는 시간이 가졌으며, 이어 2017년 어린이·청소년의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앞으로 새롭게 구성될 제2대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는 제2대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을 위해 읍면동 및 학교별 의원 참여자 공개모집을 실시해 오는 3월 중 의회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청소년의회 김정운 의장은 "2016년 어린이·청소년의회에 처음 참여해 활동하면서 우리 의견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고 군산시 청소년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추진

군산시가 올해부터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민간에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군산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총 14대를 민간에 보급하며, 전기차 초기 구매비용을 덜어주고 확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차종에 상관없이 1대당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과 기업, 법인, 단체 등이며, 보급은 개인(세대) 1대, 단체 1대씩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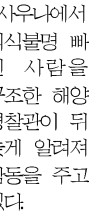
보급차종은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고,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에 적합차량으로 환경부에서 고시한 8종 고속전기자동차로 한정된다.

신청은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월 1일부터 군산시 환경정책과에 접수하면 되고, 접수된 순서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서류는 개인의 경우 경보전판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고,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해경 박형철 경위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 구해



사우나에서 의식불명 빠진 사람을 구조한 해양경찰관이 뒤늦게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다.

주인공은 군산해경서 해방 해경센터에 근무하는 박형철 경위(47(사진))

박 경위는 힘든 근무를 마치고 쉬던 지난 19일 군산시 나운동의 한 사우나를 찾았다. 평소와 같이 온탕에서 피로를 풀던 도중 탕 안에서 함께 있던 이용객 전씨(65)가 잠시간 같은 자세로 움직이지 않았던 걸 이

상하게 여겨 "괜찮으세요?" 하며 확인 차 살짝 어깨를 대자 전씨는 이내 탕 속으로 잠겼다.

이를 본 박 경위는 신속하게 전씨를 끌어올려 탕 밖으로 빼냈다. 박 경위는 환자 상태가 의식이

없고 탕 속에 잠기면서 기도를 타고 물이 들어가 호흡이 미약하고 맥박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한 뒤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10여분 간의 심폐소생술 덕에 의식을 차린 전 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군산해경 내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인명구조에 앞장 서는 해양경찰관으로 정평이 나 있는 박 경위는 96년 해양경찰에 입사한 이래로 합정파 안전센터에서 많은 인명을 구조했다.

박형철 경위는 "누구에게 알려려고 한 일이 아니다"며 "내가 쓰러졌다 하더라도 주위의 누군가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가 더욱 따뜻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원광대 안심안전 농·식품 특성화사업단 전공 관련 지식 공유 동아리 경진대회 개최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안심안전농·식품산업 인력양성 특성화사업단은 사업 참여 학과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통한 학습 및 전공 관련 지식공유와 동아리 활동의 수준 향상을 위한 '동아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교내 송산기념관에서 열린 이번 경진대회는 30개 동아리가 예선을 거친 후 11개 동아리가 본선에 올라 '영어', '자격증', '자기역량개발' 분야에서 3차년도 동아리 활동과 실적 등을 발표했다.

특히 사업단에서는 학생들의 발표실력 향상을 위해 발표 전에 스피킹 및 프리젠테이션 특강을 마련해 학생들이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며, 발표결과 생명환경학부 동물매개 치료학 전공 자기역량개발 동아리인 'Wal! Wal!'이 대상을 수상했다.

야생동물 보호 동아리인 'Wal! Wal!'은 봉사과 실습 등 다양한 활동과 발표실력 등을 인정받아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동아리 회장 전희수 학생은 "경진대회를 통해 다른 동아리들의 다양한 활동을 엿볼 수 있어 좋았다"며, "발표 전에 이루어진 스피킹 및 프리젠테이션 특강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사업단장 배종항 교수는 "동아리 경진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 남은 대학생활동만 아니라 사회에 진출해서도 창의성과 자신감이 넘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하·폐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전국 지자체·관련업체 최고의 시설로 '우뚛'

군산시 하·폐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전국 지자체와 관련업체에서 최고시설로 인정받아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이 끊을 않고 있다.

지난 2013년 총 사업비 262억원을 투입해 준공한 군산시 하·폐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은 1일 150톤의 처리용량으로, 최종 처리된 건조 슬러지는 시멘트 회사에 판매하고 있다.

이 시설은 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장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주성분 CH4)를 이용하여 보일러를 가동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이용해 슬러지를 건조하며, 건조 중에 발생된 열을 회수해 소화조에 가온수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에너지를 재사용하고 있다.

이 시설로 인해 연간 30억원의 슬러지 처리비용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슬러지 건조 부산물을 시멘트 보

조제로 판매해 연간 7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LNG) 대신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를 보일러 연료 등으로 사용해 연간 5000만원의 운영비용을 절감했고, 이를 통해 UN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6월 UN 에너지저장화 P-CDM사업에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군산시가 등록됐다.

특히 P-CDM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탄소배출권으로 인증 받고, 한국거래소에라도 판매할 수 있어 연간 3000만원의 수익도 가능하게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향후 관내 지방산단 및 국가산단에 소재한 업체에서 발생하는 하·폐수 슬러지도 빈익빈치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지역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설 명절 특별교통대책 마련

익산시는 설 명절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28일~30일까지 5일간 설 명절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설 명절기간 교통중단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KTX 익산역 환승장과 팔봉공설모터, 교통취약지역 등에 대한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해 귀성객과 성묘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KTX 익산역 환승장은 5분간의 정차를 허용하고 장시간 주차차량은 신속하게 단속 및 견인을 실시하여 환승장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설 당일에는 팔봉공설모터에 많은 성묘객들의 방문을 대비해 원팔봉삼거리~팔봉공설모터 입구까지 불법주정차 및 노점상 등을 통제하고 오전 8시~오후 5시까지 공설운동장과 팔봉공설모터 사이에 6대의 무료순환버스를 운행한다.

특히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성묘객들을 위해 장애인 수송차량 4대를 배치해 공설모터 안 질서유지를 도모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익산=장양원 기자